

기혼남녀의 긍정적 감정 유발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 Gottman 이론을 중심으로*

노 은 미

신촌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이 민 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Gottman의 이론을 중심으로 긍정적 감정 유발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혼남녀 179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 감정과 결혼만족간에 정적상관이 관찰되었고, 긍정적 감정 유발의 5가지 하위 요소 중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다가가기 변인이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해 주었다. 또한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평가와 배우자에 대한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측정하였는데, 분석결과 배우자가 긍정적 감정 유발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이 자기의 긍정적 감정 유발의 정도보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주었다. 즉, 배우자의 긍정적 감정 유발이 높다고 지각하는 집단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긍정적 감정 유발, Gottman, 결혼만족도, 자기평가, 배우자 평가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이며, 2011년 한국임상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발표를 하였음.

† 교신저자 : 이민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1
E-mail : lmk@ajou.ac.kr

결혼이란 자신만의 가치관, 욕구, 성격 등을 지닌 개인들이 만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의 초석이 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사람들은 단일한 독립체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의지할 수 있고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는 대상과 함께 일생을 설계함으로써 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결혼을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결혼 생활은 이런 기대감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너무 많다. 결국 많은 부부들이 결혼생활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고, 다시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선택하게 된다.

통계청이 2013년 4월에 발표한 ‘2012년 혼인이혼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총 이혼건수는 114,316건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 반면, 혼인지속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율은 2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통계청, 2013). 2011년도 까지는 혼인지속기간이 4년 이하 부부들의 이혼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2012년에 처음으로 20년 이상 이혼율(26.4%)이 4년 이하 이혼율(24.7%)에 비해 1.7%더 많다는 결과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혼인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들의 이혼율도 10년 전에 비해 2.4배이며, 전년대비 8.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와 같이 20년 이상 장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부부들의 황혼이혼은 그간의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때문에 부부치료영역이나 결혼만족도와 관련된 이전의 많은 연구들은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찾고, 다양한 부부치

료 기법을 제안했다(김주혜, 1994; 이창숙, 유영주, 1998; 최윤희, 2000; 김순옥, 2001). 즉, 대부분의 연구는 결혼생활의 만족감을 증가시키고 이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긍정적 감정 유발

Gottman등(1998)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부부에게서 관찰되는 주요 성공요소는 긍정적 감정, 즉 부부간의 우정임을 밝혀냈다. 여기서 말하는 우정이란, “부부가 협동 생활자로서 서로 존경과 기쁨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때때로 말다툼 같은 충돌로 상대방에 대한 마이너스 감정이 생기더라도 부부간의 우정을 통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부사이의 강한 유대감은 안정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형성하기도 한다(Gottman, 1999). Gottman이론의 핵심은 부부사이의 사라진 긍정적 감정을 유발시켜 튼튼하게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부부치료 영역에서 Gottman의 이론을 주목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약 20년 간 ‘사랑의 연구실(Love lab)’이라 불리는 곳에서 주말마다 찾아오는 부부의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센서로 맥박, 혈압, 땀 등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두 배우자가 의사소통 중에 보이는 표정, 대화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등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이다(노광식, 2007). 둘째, 부부치료 이후에 관계가 다시 악화되어 상담소를 재방문하는 비율이 다른 부부치료보다 적다는 점이다. 부부간의 의사소통기법을 학습하거나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등의 기술이 포함된 부부치료가 상담기간동안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에는

의의가 없으나 결혼만족도가 상담이 종결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는 부부치료 영역의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실제로 Jacobson(1984)와 Jacobson와 Addis(1993)는 부부치료에 대한 메타 분석의 결과 치료의 성공률은 50%보다 낮았고, 특히 부부행동치료에 대한 추적 조사 결과 치료기간 이후에 갈등은 30%가 재발하였으며, 4년 뒤에 전체 치료 커플 중 38%가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Gottman (1999)은 64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집단 치료를 시행하고 9개월 후 추적 조사에서 20%이하의 낮은 재발률을 보고하였다. 셋째, 관찰을 통해 획득한 행복한 부부들의 7가지 원칙 즉, 긍정적 감정은 학습가능한 대처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사소통 기술을 통해 부부관계를 호전시키는 접근이 부부치료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인데, Gottman(1999)은, 건강한 부부도 적극적 경청(active listening)은 드물게 발생하였고 결혼만족도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푸념의 대상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냉정을 잃지 않고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Gottman은 이혼을 예측하는 요소와 이러한 상태를 막을 수 있는 ‘7가지 원칙’을 발견하였고, 부부 각자가 ‘7가지 원칙’을 몸에 익힘으로써 행복한 부부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002).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애정지도(Love Map): 배우자의 인생과 관련된 정보를 머릿속에 그려 놓은 지도로 상대에 대한 애정이 강할수록 도면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그려진다(Gottman, 2002). (2)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Fondness and Admiration system):

배우자에게서 발견하는 가치와 경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사랑하는 것이다(박자영, 2009). (3) 다가가기 혹은 멀어지기(Turning toward or Turning away): 취미 및 여가활동, 가사 활동을 함께 하거나 공감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거부하는 것이다(공성숙, 2004). (4) 배우자의 영향력 수용하기(Accepting influence): 배우자를 존중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다(Gottman, 1998). (5) 회복시도(Repair Attempt): 부부만의 효과적인 갈등 해결 방식을 훈련시켜서 부부가 스스로 갈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Gottman, 1998). (6) 타협하기(Compromise): 막다른 길에 놓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꿈을 공유하고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가는 것이다(Gottman, 1998). (7) 삶의 의미공유하기(Shared meaning): 자신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이나 열망을 함께 나누고 이러한 꿈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각할 때 비로소 부부간의 긍정적인 감정의 연결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Gottman, 1999). 본 연구에는 7가지 원칙 중 평가가 가능하고 개입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5가지 원칙을 선별하여 ‘긍정적 감정 유발(Inducing Positive Affect)’로 정의하였는데, 긍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기술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5가지로 선별된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애정지도(Love Map), 2.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Fondness and Admiration System), 3. 다가가기 혹은 외면하기(Turning toward or Turning away; 이하 다가가기), 4. 배우자의 영향력 수용하기(Accepting Influence; 이하 영향력 수용), 5. 회복시도하기(Repair Attempt; 이하 회복시도).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

1980년대에 결혼관계를 다룬 대부분 연구들은 행동과 결혼만족의 관계에 인지적 요인이 매개 혹은 조절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했다(Bradbury & Fincham, 1990; Baucom & Epstein, 1990). 즉, 이 연구들은 관계 기대, 신념 및 태도 등의 인지적 요인이 행동에 대한 정보처리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정보 처리된 결과로 배우자 행동에 대한 해석, 지각 및 추후 반응이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에 따르면, 결혼만족도를 좀 더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행동에 대한 정보처리 기제가 무엇인지를 조망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1) 배우자 행동에 대한 해석, (2) 자신, 배우자 및 관계에 그 행동이 주는 함의에 관한 지각, 및 (3) 이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한 결정을 매개 혹은 조절하는 인지과정들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지기제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널리 인식되어 왔으나(Arias & Beach, 1987; Berley & Jaconsom, 1984; Bradbury & Fincham, 1987; Newman & Langer, 1983)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이경성, 2003).

일반 부부와 부부클리닉 방문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공성숙, 2006)에서는 자신의 긍정적 감정이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배우자의 성격특성에 대한 지각이나 생각이 실제 성격의 차이보다 결혼만족도를 더 잘 설명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Fisher & McNulty, 2008; Robbins, Caspi, & Moffitt, 2000). Cohen과 Wills(1985)도 개인의 적응과 심리적 안녕에 대해서 실제 지지보다 지

각된 지지가 더 잘 예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Funder(2001)도 종단연구를 통해 자신이 지각하는 상대방의 성격특성이 결혼생활의 질을 더 잘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Deal (1999)과 그의 동료들은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자신의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 의사소통 악화요인도 관련 있지만 남편의 결혼만족도, 긍정적 감정, 갈등조정방식과 의사소통 악화요인과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공성숙, 2006).

지각의 차이는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 사이에서 더 분명하다. 부부불만족도가 높은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은 평가절하하고 부정적 행동은 배우자의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특성으로 귀인 하는 등의 지각편파를 확인하였다(Baucom & Epstein, 1990; Bradbury & Fincham, 1990; Bradbury & Fincham, 1991; Bradbury, Fincham, Beach, & Nelson, 1996). 이경성(2003)의 연구에서도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보다 긍정적 행동을 더 많이 기술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Holtzworth와 Munroe(1989)의 연구에서는 불행하거나 불행하지 않은 부부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행동하라” 혹은 “부정적으로 행동하라”라고 지시한 결과 불행한 부부들은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내적인 요인으로 귀인 하는 경향이 있었고, 불행하지 않은 배우자들은 배우자의 긍정적인 행동을 내적으로 귀인 하는 경향이 있었다.

Gottman(1999) 역시 불행한 부부와 불행하지 않은 부부사이의 자기평가와 배우자에 대한 평가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불행하지 않는 부부들은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은 최대화 하는 “관계향상 relationship-enhancing”에

귀인 함을 확인했다. 반면 불행한 부부들은 배우자의 부정성을 극대화 시켜 귀인하고, 배우자의 긍정성은 극소화 시켜서 귀인 하는 “고통을 유지하는 것 distress maintaining”에 귀인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각과정에서의 해석과 평가 내용은 부부의 환경적 사건이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목적 및 가설

부부치료 영역에서도 부부간의 긍정적 감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Gottman의 이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긍정적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이(홍순건, 2005; 공성숙, 2004; 노광식, 2007; 서선미, 2004) 진행되고 있지만 학술지에 실린 연구는 김희진(2005)의 연구가 유일할 정도로 국내에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Gottman의 긍정적 감정 유발이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둘째, 긍정적 감정 유발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이 결혼만족도를 차별적으로 예측해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평가(즉, 긍정적 가정 유발에 대한 자신의 사용 정도)와 배우자 평가(즉, 배우자의 긍정적 감정 유발의 사용 정도에 대한 자기 지각) 중 결혼만족도에 대한 예측력이 높은 변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혼남녀 19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 19명을 제외한 179명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의 관공서 및 여성회관, A대학교의 교육대학원생들이었다. 설문지는 아내용과 남편용을 분리하여 만들었고,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측정도구

긍정적 감정 유발(Inducing positive affect)

Gottman(1999)이 주장한 7가지 원칙에 해당되는 척도를 번역하기 위해 먼저 심리학과 교수 1인, 임상심리전문가 1인 그리고 연구자가 함께 번역하였다. 기존의 ‘예’, ‘아니오’의 2점 척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특성상 동일 문항에 대해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응답 란에 ‘나는~’과 ‘나의 남편(아내)은~’과 형태로 만들어 응답하기 쉽게 작업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타협하기’척도는 다른 설문지에서 이미 응답한 질문들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설문지에서 배제시켰다.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미 공유하기 척도’는 문항 자체에서 자기 평가와 배우자에 대한 평가간의 차이가 없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배제시켰다.

애정 지도(Love Map; Gottman, 1999)

이 척도는 배우자의 취미, 최근 스트레스,

어린시절등과 같이 배우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3문항을 삭제하여 총 17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삭제된 문항의 기준은 기존 문항에서 이미 상대방에 대한 평가내용이 포함되는 문항을 일차적으로 선별한 뒤 문항의 내용이 이미 다른 문항에 반복되어 측정되는 경우이다. 삭제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는 최근 나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배우자는 나의 친구가 누군지 알고 있다’, ‘배우자는 나의 꿈과 소망을 알고 있다.’ 홍순건(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20였고,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847이었다.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Fondness & Admiration; Gottman, 1999)

이 척도는 상대방에 대한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이를 어느 정도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5문항이 수정되었다. 문항 수정의 기준은 기존 문항에서 이미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지만 동일 내용이 다른 문항에 없는 경우로 이때 ‘배우자’라는 말을 사용하여 평가 가능 하도록 질문의 형태를 바꾸었다. 예를 들어 ‘배우자는 나를 진심으로 존경해준다’와 같은 문항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배우자를 진심으로 존경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홍순건(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44였고,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951로 기존 연구와 유사했다.

다가가기 혹은 떨어지기(Turning toward or

Turning away; Gottman, 1999)

이 척도는 일상적인 집안일이나 여가활동, 의견 공유와 같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과 관련된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빨래를 개거나 TV보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일도 함께 하는 것을 즐긴다’, ‘남편과(나와) 마음이 잘 통한다’와 같은 세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 수정의 기준은 위의 척도와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57이었다.

영향력 수용하기(Accepting Influence; Gottman, 1999)

이 척도는 갈등이나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문제에 대한 남편의(나의) 의견에 관심이 많다’, ‘의견을 나눌 때, 양보하는 편이다’와 같은 세부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문항 수정의 기준은 위의 척도와 동일하다. 홍순건(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74이고,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745이었다.

회복시도하기(Repair Attempt; Gottman, 1999)

이 척도는 부부싸움 중이나 이후에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에 관한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순건(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13이고,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860이었다.

결혼만족도(Korea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권정혜, 채규만, 1999)

권정혜와 채규만(1999)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K-MSI) 중에서 전반적

불만족 척도(Globe Distr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전반적 불만족 척도는 결혼생활에서의 불만족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우리의 결혼생활이 꽤 행복하다고 생각 한다”, “내 결혼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실망스럽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1, 2, 9, 14, 16, 17, 18, 19, 21, 22번 문항은 역 채점 된다. 따라서 K-MSI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불만족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산출하기 위해 나머지 문항을 역산하였다. 권정혜와 채규만(1999)의 내적합치도는 .92이고,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85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dows 15.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절차는 첫째, 남녀 성차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결혼만족도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 결과 모든 인구통계학적특징이 결혼만족도와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하지 않았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 한 뒤, 각 변인에서 남녀간의 성차를 t-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 셋째, 긍정적 감정 유발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으로 살펴보고, 긍정적 감정 유발의 하위요인이 결혼만족도를 차별적으로 예측해주는지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기 위해 주요변인들간의 상관을 먼저 확인하였다. 하지만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간의 상관분석결과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간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었다. 다중공선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차(Tolerance)와 상승변량(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의 값이 모두 1.0을 벗어났다.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간의 다중공선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다중공선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을 실시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한 결과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간의 공차(Tolerance)와 상승변량(VIF)의 값이 1.0 이하로 떨어져 두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은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다섯째, 배우자의 긍정적 감정 유발의 평가와 자기 평가 중 결혼만족도를 더 잘 예측해줄 수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에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결 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빈도분석

응답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보면 (표 1), 연령은 남녀 모두 40대(각각 40.3%, 40.2%)가 가장 많았고, 결혼기간은 10~20년(각각 36.4%, 37.3%)이 가장 많았다. 학력은 남자의 경우 대졸이 41명으로 전체 중 54.5%를 차지한 반면 여자의 경우 고졸이 44명으로 전체 중 43.1%를 차지했다. 두 집단에서 모두 평균 자녀수는 2명(각각 61%, 64.7%)이 가장 많았다.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성별의 빈도 차이 검증 결과 학력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교 졸업이 남녀사이의 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남자의 경우 대학원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징

변인	남자(N=77)		변인	여자(N=102)		chi-square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연령	20대	1(1.3%)	연령	20대	1(1.0%)	X ² =.887 df=4
	30대	28(36.4%)		30대	35(34.3%)	
	40대	31(40.3%)		40대	41(40.2%)	
	50대	17(22.1%)		50대	24(23.5%)	
	60대 이상	0		60대 이상	1(1.0%)	
	합계	77(100%)		합계	102(100%)	
결혼 기간	1년 이하	5(6.5%)	결혼 기간	1년 이하	2(2.0%)	X ² =6.692 df=4
	1~5년	12(15.5%)		1~5년	13(12.7%)	
	5~10년	16(20.8%)		5~10년	14(13.7%)	
	10~20년	28(36.4%)		10~20년	38(37.3%)	
	20년 이상	16(20.8%)		20년 이상	35(34.3%)	
	합계	77(100%)		합계	102(100%)	
학력	초졸	0	학력	초졸	2(2.0%)	X ² =15.253*** df=4
	중졸	1(1.3%)		중졸	6(5.9%)	
	고졸	18(23.4%)		고졸	44(43.1%)	
	대졸	41(54.5%)		대졸	41(40.2%)	
	대학원 이상	16(20.8%)		대학원 이상	9(8.8%)	
	합계	77(100%)		합계	102(100%)	
자녀수	없다	7(9.1%)	자녀수	없다	13(12.7%)	X ² =4.026 df=4
	1명	20(26%)		1명	16(15.7%)	
	2명	47(61%)		2명	66(64.7%)	
	3명	3(3.9%)		3명	6(5.9%)	
	4명 이상	0		4명	1(1.0%)	
	합계	77(100%)		합계	102(100%)	

이상의 학력이 20.8%로 여자(8.8%)보다 많았고, 고졸 학력은 여자 응답자들이 43.1%로 남자 응답자 23.4%보다 많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보았다.

인구통계학적변인과 결혼만족도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성별, 연령, 결혼기간, 학력, 자녀수)에서 결혼만족도간의 차이가 발

표 2.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변량분석표

변인	변량원	SS	df	MS	F
성별	집단간	.097	1	.099	2.20
	집단내	7.966	177	.045	
연령	집단간	.137	4	.034	.75
	집단내	7.926	174	.046	
결혼기간	집단간	.162	4	.040	.88
	집단내	7.901	174	.045	
학력	집단간	.210	4	.053	1.17
	집단내	7.852	174	.045	
자녀수	집단간	.259	4	.064	1.42
	집단내	7.063	174	.045	

생하는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표 2). 즉,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결혼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동질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 편차

긍정적 감정 유발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 편차를 분석하였고, 각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영향력 수용하기 변인에 대한 배우자 평가에서만 남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생했다($t=2.13, p<.05$). 결혼만족도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남자 집단에서 평균이 더 높았다($M=15.34$).

긍정적 감정 유발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감정 유발과 결혼만족도간의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결혼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감정 유발의 설명력을 살펴보았다(표 4). 그 결과 긍정적 감정 유발은 결혼만족도를 34.3%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긍정적 감정 유발의 하위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감정 유발의 예측력을 Enter방식의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표 5). 그 결과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beta=.305, p<.05$)과 다가가기($\beta=.243, p<.05$)가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변인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감정 유발의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가 미치는 영향

긍정적 감정 유발의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

표 3.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 편차

주요변인	평균(표준편차)			t	
	남자(N=77)	여자(N=102)	전체(N=179)		
자기평가	긍정적 감정 유발	17.80(2.03)	17.76(2.35)	17.77(2.21)	.11
	애정지도	3.69(.44)	3.76(.54)	3.73(.50)	-.85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	3.66(.50)	3.59(.72)	3.62(.68)	.79
	다가가기	3.49(.65)	3.57(.75)	3.53(.70)	-.75
	영향력 수용하기	3.38(.33)	3.4(.76)	3.39(.35)	-.21
	회복 시도하기	3.56(.33)	3.46(.46)	3.50(.44)	1.65
배우자 평가	긍정적 감정 유발	17.29(2.20)	17.15(2.55)	17.21(2.40)	.42
	애정지도	3.52(.50)	3.44(.62)	3.47(.57)	1.03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	3.46(.66)	3.54(.68)	3.50(.67)	-.83
	다가가기	3.50(.68)	3.46(.76)	3.47(.73)	0.33
	영향력 수용하기	3.38(.30)	3.28(.33)	3.33(.32)	2.13*
	회복 시도하기	3.44(.52)	3.43(.55)	3.44(.53)	.11
Marital satisfaction	15.34(4.72)	14.27(4.62)	14.80(4.17)	1.47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표 4. 긍정적 감정 유발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변인	R ²	ΔR ²	F	B	β	t
긍정적 감정 유발	.343	.343	92.428	.056	.586	9.61***

* $p < .05$, ** $p < .01$, *** $p < .001$

표 5. 긍정적 감정 유발의 하위요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β	t
애정지도	-1.295	-.138	.059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	2.104	.305	2.573*
다가가기	1.613	.243	2.109*
영향력 수용하기	1.354	.102	.208
회복시도하기	1.493	.142	.063

* $p < .05$, ** $p < .01$, *** $p < .001$

가간의상호작용을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1단계에서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 평가와 배우자 평가간의 설명력은 36.5%였지만, 배우자의 평가에서만 주 효과가 확인되었다($\beta=.365, p<.01$).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의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2단계에서는 설명력이 4.5% 증가되어 41%가 되었고,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하였다($\beta=-.213, p<.001$). 즉 결혼만족도에 대한 예측력은 자기평가보다 배우자의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평가가 더 높다는 사실이 지지되었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배우자

평가 수준에 따른 차이에 관한 그래프를 살펴보면(그림 1),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 평가가 높은 집단은 배우자의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평가가 낮은 집단은 배우자의 긍정적 감정 유발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차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본인의 긍정적 감정 유발보다 배우자의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신의 지각이나 해석이 결혼만족도를 더 유의미하게 예측해주는 변인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표 6.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 상호작용의 회귀분석

단계	변인	R ²	ΔR ²	F	B	β	t
1단계	자기평가				.024	.253	1.708
	배우자 평가	.365	.365	50.579***	.032	.365	2.466**
2단계	자기평가				.026	.266	1.864
	배우자 평가				.031	.355	2.481**
	자기X배우자	.410	.045	40.599***	-.007	-.213	-3.67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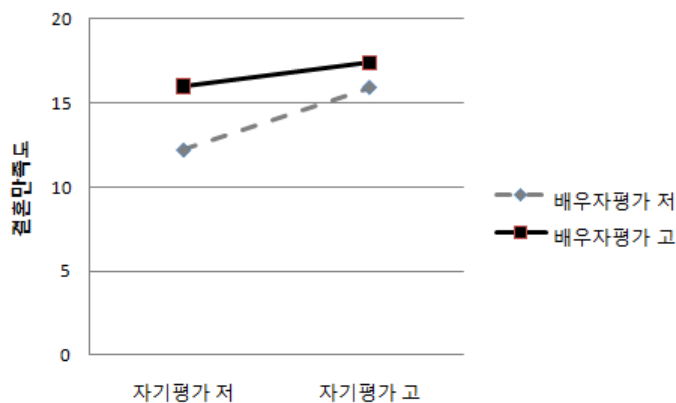


그림 1.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의 상호작용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간의 수준에 따른 집단 간 비교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간의 상호작용이 어느 집단 간 차이에서 발생했는지 탐색하기 위해서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를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저-집단과 고-집단으로 분리한 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가 모두 낮은 집단(집단 1)과 자기평가는 높고 배우자 평가가 낮은 집단(집단 3)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p < .001$) (표 7).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의 점수가 둘 다 높은 집단에서 결혼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M=17.40$),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 모두 낮은 집단에서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음이 발견되었다 ($F(3,175)=22.314, p < .001$). 또한 집단 간 차이를 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사용한 결과 (표 8)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 모

두 낮은 집단(집단 1)과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가 모두 높은 집단(집단 4)에서 가장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p < .001$). 두 번째로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가 모두 낮은 집단(집단 1)과 자기평가는 높고 배우자 평가가 낮은 집단(집단 3)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긍정적 감정 유발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긍정적 감정 유발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는지를 살펴 본 뒤, 긍정적 감정 유발의 하위 요인들이 차별적으로 결혼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 중 결혼만족도를 더 잘 예측할

표 7.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수준별 평균과 표준편차

		배우자 평가 M(SD)	
		저	고
자기평가 M(SD)	저	집단 1 (N=86)	집단 2 (N=5)
		12.22(4.99)	16.00(4.24)
	고	집단 3 (N=17)	집단 4 (N=71)
		15.94(3.41)	17.40(2.50)

표 8.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변량원	SS	df	MS	F	Scheffe
집단간	2.230	3	.743	22.314***	1<3,4
집단내	5.829	175	.033		
합계	8.058	178			

* $p < .05$, ** $p < .01$, *** $p < .001$

수 있는 변인을 확인 한 뒤,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긍정적 감정 유발과 결혼만족도간의 정적인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즉, 두 변인간의 단순회귀분석 결과 긍정적 감정 유발은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홍순건, 2005). Gottman(1999)의 주장처럼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 각자가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이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긍정적 감정 유발의 하위 요인이 결혼만족도를 차별적으로 예측해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의견, 여가활동 등을 공유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Gottman의 7가지 원칙 중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결혼만족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이라는 홍순건(200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부부간의 좋아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그것을 배우자에게 표현하는 것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일 것이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과 스트레스들로 인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점점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무덤덤해지게 된다. Gottman(1999)은 부부간의 긍정적 감정은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만일 부부에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들에 대한 치료적 접근으로 관계 초기에 형성되었던 좋아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불

러일으키도록 학습시키는 것이 관계 호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가가기는 배우자와 시간을 공유하며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Locke(1951)의 연구에서 역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는 ‘레크레이션 욕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가치에 더욱 동의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Gerson(1960)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와 함께 여가시간을 보내며 즐기는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는데, 이 같은 결과는 단순히 여가시간의 많음이 결혼만족도와 관계있는 것이 아니라 여가시간을 공유하고 싶다는 인식이 만족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김민녀, 2003).

반면 애정지도, 영향력 수용하기, 회복시도는 결혼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해주지 못했는데, 이는 Gottman(1999)의 연구와 상충되는 결과이다. 애정지도 즉, 상대방에 대해 알고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유의할 것이라는 가설을 유의하지 않았는데, 갈등 시 배우자의 갈등 대처 행동에 대한 이해크기(즉 배우자가 갈등 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정도)는 관계 만족과 관련 있다는 Acitelli 등(2001)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으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대방의 성격의 이해크기와 교우관계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고재홍, 김명렬, 2004)와는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미경, 2008). Gottman의 주장과는 달리 애정지도가 결혼만족도의 예측변인이 아닐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애정지도 설문지의 구성타당도의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애정지도 설문지의 문항은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알고 있다’, ‘좋아하는 친척들을 열거할 수 있다’, ‘첫 인상을 자세히 알 수 있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

성되어 있는데, 부부간의 성격, 취미, 가치관 (고재홍, 전명진, 2003)과 같이 결혼만족도와 관련 있는 문항들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 있겠다. Gottman(1998)이 아내는 남편의 영향력을 잘 수용하는 반면 남편이 아내의 영향력을 거부하는 것은 이혼의 예측변인임을 주장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영향력 수용하기 또한 결혼만족도를 예측하지 못했다. 하지만 배우자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Gottman의 기존 연구 결과를 보면, 영향력의 수용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기술한다. 아내가 남편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정도가 더 적은 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분석한 결과 영향력 수용하기 변인에서 배우자에 대한 평가(즉, 배우자가 나를 수용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지각)에서만 남녀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t=2.13, p<.05$).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부부들만의 해결 방식을 시도함으로써 결혼 생활이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하는데 필요한 회복 시도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예측해 주지 못했다. Gottman(1998)은 긍정적 결혼 생활을 예측하고 남성의 생리적 진정도 밀접하게 관련 있는 회복시도는 부정적 감정의 강도에 따라서 아내와 남편이 다르게 사용한다고 언급했다. 즉, 남편은 약한 부정적 감정(슬픔, 서럽게 우는 것, 긴장 혹은 두려움)과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관계 회복 기술들을 시도하지만, 아내는 강렬한 강도의 부정적 감정(경멸, 방어성 혹은 전투)과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유머와 같은 관계 회복 기술들을 사용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배우자의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지각이

자기 평가보다 결혼만족도의 예측력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분석 결과, 배우자가 긍정적 감정 유발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집단에서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몇몇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한(박영화, 고재홍, 2005; 이종선, 권정혜, 2002; Acitelli, Douvan, & Veroff, 1993) 배우자의 실제 특성보다 배우자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자신의 지각이나 해석이 결혼만족도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를 높고 낮은 집단으로 분리한 뒤 분석하니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가 모두 낮은 집단과 자기평가는 높고 배우자 평가가 높은 집단에서 가장 큰 차이를 발견했다. 또한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평가가 높은 집단보다 배우자의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평가가 더 높은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높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긍정적 감정정도도 중요하지만 배우자의 긍정적 감정에 대한 자신의 지각 또한 결혼만족도의 유의미한 예측 변인임을 지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치료 영역에서도 배우자가 표현하는 긍정적 감정들을 잘 포착하고 이를 격려함으로써 상대방의 표현을 지지하는 연습도 함께 포함된다면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기혼남녀들은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고,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피검자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학력, 직업, 경제적 수준과 같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

른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여 피검자를 모집해야 할 필요 있겠다.

둘째, 동일인이 긍정적 감정 유발에 대한 자기평가와 배우자에 대해 평가를 하다 보니 두 변인의 상관성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정도로 높았다는 것이다. 다중공선성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균집중화(centering)방식을 사용하였지만, 평균집중화가 다중공선성을 낮춘다는 사실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이와 같이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때는 요인점수(factor score)를 추출하여 그 수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추천한다(양병화, 2006). 다중공선성에 대한 대안적 해석은 첫째, 부부간의 유사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결혼한 부부들의 심리적 특성이나 삶의 태도, 성격, 가치관 등에서의 유사성(similarity)은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김향련 & 고재홍, 2003; Acitelli, et al., 2001; Byrne & Blaylock, 1963). 고재홍(2003)의 연구에서도 남편은 부인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가정할수록 부인은 남편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자신과 배우자를 유사하게 지각하였고, 그 유사한 지각은 개인의 결혼만족도를 안정적이게 예측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설문지의 구성 상 한 문항에 대해서 연속으로 두 가지 응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항에서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사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평가와 배우자 평가간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변별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실제 배우자가 긍정적 감정을 사용

한 정도와 자신이 지각한 정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부부 중 한 개인은 배우자가 긍정적 감정 유발을 적게 사용한다고 지각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배우자의 긍정적 감정 유발의 정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는 긍정적 감정 유발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나의 지각이 과소 혹은 과대평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나의 지각과 배우자의 실제 속성간의 일치도를 쌍 자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결혼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 대한 측정에 대해 응답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정현숙, 2001).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남편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Hunsley, Vito, Pinsent, Jamnes & Lefebvre, 1996; Russel & Wells, 1992)고 한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일치하게 결혼만족도의 평균이 여자보다 남자 집단에서 더 높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문항을 하위영역(Idealistic distortion)에 포함시켜야 하겠다(정현숙, 2001).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본 연구 결과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의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에 부부치료 영역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았던 결혼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감정유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진 부부의 경우, 그들의 긍정적인 감정을 되살리고, 이를 토대로 의사소통 기술들을 학습시키면 부부치료의 더

높은 효과성이 나타날 것이다.

둘째, 배우자에 향한 긍정적 감정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긍정적 감정에 대한 호의적인 지각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배우자를 향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자가 나를 향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 역시 개인의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재홍, 전명진 (2003). 부부의 유사성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16.
- 고재홍, 김명렬 (2004). 청소년 교우간 성격 유사성, 상호성, 이해 및 호감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1), 53-64
- 공성숙 (2004). Gottman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부부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2(2), 141-171.
- 김미경, 고재홍 (2008). 프로파일 일치도로 본 부부간 유사성과 배우자 이해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215-235.
- 김민녀 (2003). K-MSI를 활용한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가족생활 주기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옥 (2001). 부부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37-157.
- 김주혜 (1994). 의사소통 기술훈련 프로그램이 부부들의 의사소통 향상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련, 고재홍 (2007).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2), 89-105.
- 김희진 (2005).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긍정주의 심리치료 접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77-906.
- 노광식 (2007). Gottman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 행복한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방식 및 갈등 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자영 (2009). 중년부부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개발: Gottman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학제신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선미 (2004). Gottman의 부부치료 원리를 활용한 결혼초기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병화 (2006). 다변량 데이터 분석법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경성 (2003). 결혼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을 더 많이 기억하는가? 한국심리학회: 여성, 8(2), 21-31.
- 이종선, 권정혜 (2002).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패턴 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임상, 21(2), 313-330.
- 이창숙, 유역주 (1998). 부부갈등해결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46-71.
- 정현숙 (2001). 한국형 결혼만족도 척도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 39(11), 89-106.

- 최윤화 (2000). 부부관계증진 프로그램이 부부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교육학회*, 9(2), 13-25.
- 통계청 (2013). 2012년 인구통계 결과. <http://www.nso.go.kr>
- 홍순권 (2005). 건강한 부부의 특징: Gottman 의 이론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rias, I., & Beach, S. R. H. (1987). *The assessment of social cognition in the context of marriage*. In K. D. O'leary (Ed), *Assessment of marital discord*(pp.109-13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citelli, L. K., Douvan, E., & Veroff, J. (1993). Perceptions of conflict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How important are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 5-19.
- Acitelli, L. K, Kenny, D. A. (2001). Accuracy and bias in the perception of the partner in a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3). 439-448
- Baucom, D. H., & Epstein, N. (1990). *Cognitive-behavioral marital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Baucom, D. H., Notarius, C. I., Burnett, C. K., & Haefner, P. (1990). Gender difference and sex-role identity in marriage. In F. D. Fincham & T. N. Bradbury(Eds). *The psychology of marriage: Basic issues & Applica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rley, R. A., & Jacobson, N. S. (1984). Causal attributions in intimate relationships: Towards a model of cognitive-behavioral marital therapy. In P. Kendall(Ed),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Vol. 3 pp.1-60). New York: Academic Press.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87). *Affect and cognition in close relationships: Toward an integrative model*. *Cognition and Emotion*, 1, 58-87.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0). Attributions in marriage: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70(1), 3-33.
- Bradbury, T. N., Beach, R. H., Fincham, F. D & Nelson, G. M (1996). Attributions and Behavioral i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Marri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3), 569-576.
- Byrne, D., Blaylock, B. (1963). Similarity and assumed similarity of attitudes among husband and wiv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636-640.
- Cohen, S., & Wills, T. S.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Deal, J. E., Halverson, C. F., & Wampler, K. S. (1999). Parental similarity on child-rearing orientation: Effects of stereotype similarit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16, 87-102.
- Funder, D. C (2001). *The Personality Puzzle* (2nd, Ed.). New York: Norton.
- Gottman, J. M., Coan, J. A., Carrere, S., & Swanson, C. (1998). Predicting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from newlywed interac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5-22.
- Gottman, J. M. (1999). *The marriage clinic: A scientifically-based marital therapy*. NY: Norton.

- Gottman, J. M. & Silver, N. (1999). *The seven principles for making marriage work*. New York: Brockman.
- Gottman, J. M. & Silver, N. (1999). 임주현 역 (2002).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서울: 문학사상사.
- Holtzworth-Munroe, A., Jacobson, N. S., & Whisman, M. (1989).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Marital Therapy outcome and Process variab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5), 658-662.
- Hunsley, J. Vito, D, Pinsent, C, James, S & Lefebvre, M. (1996). Are Self-Report Measures of Dyadic Relationships Influenced by Impression Management Bias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322-330.
- Jacobson, N. S. (1984). A component analysis of behavioral marital therapy: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behavior exchange and communication/problem -solving train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2), 295-305.
- Jacobson, N. S & Addis, M. E. (1993). Research on couple therapy: What do you know? Where are you go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85-93.
- Newman, H. M., & Langer, E. J. (1983).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and courses of intimate relationships: A cognitive model*. In L. Y. Abramson (Ed), *Social-personal inference in clinical psychology* (pp.120-137). New York: Guilford Press.
- Robins, R. W., Caspi, A., & Morifffit, T. E. (2000). Two personalities, one relationship: Both partner's personality traits shape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251-259.
- Russel, R. J. H & Wells, P. A (1992). Social desirability and quality of marriage.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13, 787-791.
- 1차원고접수 : 2013. 7. 24.
심사통과접수 : 2013. 9. 11.
최종원고접수 : 2013. 9. 28.

Relationships Between Inducing Positive Affect and Marital Satisfaction of married Men and Women: Based on Gottman theory

Eun-Mi Roh

Department of Psychiatry
Severance Hospital

Min-Kyu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The Study was conduc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cing Positive Affect and Marital Satisfaction based on Gottman theory. The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of 179 men and women in Gyeonggi-do was positive correlation at the .01 level of significance between Inducing Positive Affect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Fondness and Admiration system and Turning Toward of 5 subfactor in Inducing Positive Affect was anticipated in Marital Satisfaction. The Positive Affect separated self evaluation and partner evaluation. The result of Marital Satisfaction was anticipated in Inducing Positive Affect by perceive partner evaluation than by self evaluation. Marital Satisfaction was increased that individual is perceived greater of partner about Inducing Positive Affect. The result of greater in Inducing Positive Affect was increasing Marital Satisfact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Inducing positive affect, Gottman, marital satisfaction, self evaluation, partner evaluation